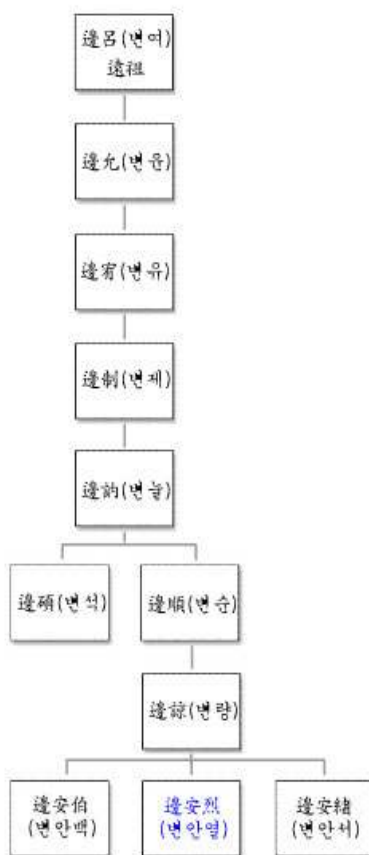


1. 원주변씨에 대하여

《원주변씨족보(原州邊氏族譜)》에 의하면 중국 송(宋)나라 말에 고려 황주(黃州)에 귀화한 변요(邊玄)의 아들 변여(邊呂)가 태천백(泰川伯)에 봉해졌다. 그의 현손 변순(邊順)은 1268년(원종 9) 사신 탈타아(脫朵兒)를 수행하여 원(元)나라에 가서 심양(瀋陽)의 장수로 있다가 천호후(千戶侯)에 봉작을 받았다. 그의 손자 변안렬(邊安烈)은 공민왕과 왕비 노국공주(魯國公主)를 배종하고 귀국하여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을 격퇴시켜 이등공신(二等功臣)으로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에 올랐으며 이듬해 경도(京都)를 수복하는 데 공을 세워 추성보조일등공신(推誠輔祚一等功臣)에 책록되고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었다. 1376년(우왕 2)에는 추충양절선위익찬보조공신(推忠亮節宣威翊贊輔祚功臣)로서 이성계(李成桂), 유실(柳實) 등과 함께 운봉(雲峰), 부령(扶寧) 등지에서 왜구를 크게 소탕하여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올랐으며, 한방언(韓邦彦)과 함께 단양(丹陽)과 안동(安東)에 침입해 온 왜구를 격퇴시켜 원주부원군(原州府院君)으로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렀으나 이성계(李成桂) 일파를 제거하고 쫓겨난 우왕(偶王)을 복위 시키려다가 김저(金佇)와 함께 죽었다. 그는 공민왕의 인척인 원주원씨(原州元氏)의 딸과 혼인하여 원주에 정착하였다.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원주(原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원천부원군이상 계세도(原川府院君以上系世圖)



2. 분적종 및 분파

원주변씨는 황주변씨(黃州邊氏)의 시조 변여(邊呂)의 후손이어서 황주변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명(派名)을 살펴보면, 별좌공파(別坐公派), 참의공파(參議公派), 첨추공파(僉樞公派), 남부령공파(南部令公派), 호군공파(護軍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감찰공파(監察公派), 군수공파(郡守公派), 부마공파(駙馬公派), 사옹공파(司勇公派), 중랑장공파(中郎將公派)로 나뉘어졌다.



3. 본관 소재지 원주

원주(原州)는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평원군(平原郡) 또는 치악성(雉岳城)인데, 677년(신라 문무왕 17)에 북원소경(北原小京)이었으며 757년(경덕왕 16)에 북원경(北原京)으로 고쳤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원주(原州)로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에 군으로 바꾸어 열월군과 제천군을 속군으로 평창현·단산현·영춘현·주천현·황려현을 속현으로 거느린 큰 군이 되었다. 1259년(고종 46)에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260년(원종 1)에 원주군으로 복구되었다. 1269년(원종 10)에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으며, 1291년(충렬왕 17)에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개칭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원주목으로 승격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성안부(成安府)로 강등되었다가 1353년(공민왕 2)에 원주목으로 회복되었다. 조선에 들어서도 원주목을 유지했으며, 강원도의 관찰사영이 위치한 행정중심지였다. 1683년(숙종 9)과 1728년(영조 4)에 잠시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23부를 실시함에 따라 강원도의 감영이 폐지되고 충주부 소속의 원주군이 되었다가, 1896년에 도제 실시로 강원도 원주군이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개칭하였고, 1995년 원주군이 원주시에 통합되었다.

4. 주요 세거지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 황해도 연백군 온정면 모계리
- 제주도 제주시 일원

5. 원주변씨 주요 인물

변안열은 양의 둘째아들로 원나라에서 원수를 지내다가 공민왕비인 노국공주를 배종, 고려에 들어와 장군으로 많은 공을 세워 원주부원군에 봉해져서 원주(原州)를 본관으로 삼았다. 안열은 1361년 (공민왕 10) 안우(安祐)와 함께 홍건적을 격퇴시켜 2등공신으로 판소부 감사에 승진, 이듬해 서울을 수복하고 1등공신이 되었으며 예의판서에 승진되면서 추성보조 공신에 올랐다. 판밀직사사로 최영 과함께 제주를 정벌한 후 지문하부사 문하평리를 역임했다. 우왕 때 양광 전라도 도지휘사 겸 조전원수로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문하찬성사가 되었다. 이어 도순찰사 이성계(李成桂)의 부장으로 운봉(雲峰)에서 왜적을 대파 하고 정방제조가 되었다. 단양 안동의 왜구를 몰아낸 후 원주부원군 에 봉해지고, 판삼사사 영삼사사가 되었다. 시조의 묘소는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 향사하고 있다.

원주변씨는 조선조에서 문과 급제자 28명, 부마 2명, 공신 3명, 명장 1명을 배출했다. 조선시대의 인물로는 정종의 부마인 변상복(邊尙服)과 그의 조카로 태종의 부마가 된 변효순(邊孝順)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 을 들 수 있다. 그 중 버슬 열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변안열의 장남 변현은 판봉상사사(判奉常寺事), 둘째 변이는 태종 때 도총제(都摠制)를 지냈고 셋째 변에는 판훈련원사(判訓練院事)를 역임했다. 특히 변안열의 증손 변처령과 4세손 변수, 그의 조카 변사겸 등 변씨네 일가는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나란히 정국공신에 오르는 등 가문의 명예를 한층 드높였다.

시조의 4세손인 변수(邊修)는 호조, 병조, 형조, 공조 등 4조의 참의(參議;정3품직)를 차례로 거쳤다. 충청, 경상, 함경도 병사(兵使;정3품직)를 역임한 뒤 중종반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임금이 그 공을 높이 치하해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대우)로 예우했다. 말년에 관직을 놓고 경기도 양평읍 창대리로 낙향하자 나라에서는 그를 원천군에 봉했다.

양호공(襄胡公) 변사겸(邊士謙) 역시 정국공신 4등으로 원양군에 봉해졌다. 양정공(良靖公) 변협(邊協)은 을묘왜변 때 해남현감으로 왜구를 격퇴하고 장흥부사가 되었다. 후에 제주목사가 되어 조정의 명으로 유배중인 요승 보우를 참형하고, 돌아와서 공조 판서 겸 도총관 포도대장에 이르렀다.

충장공(忠壯公) 변응정(邊應井)은 임진왜란 때 적의 전함을 크게 격파하고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김제군수 정담과 함께 금산의 적을 쳐서 전과를 크게 올렸으나 적의 야습을 받아 전사했다.

정의공(貞毅公) 변양걸(邊良傑)은 선조조 경원부 번호의 난 당시 조방장으로 길주목사가 되어 부임했다가 병사 들에 대한 명망을 시기한 주장의 무고로 서변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강화를 방어했고, 뒤에 훈련대장 도총관 수원부사 제주목사 등을 지냈다.

변응성(邊應星)은 협의 아들로 광해군 때 훈련대장을 지냈다. 변흙은 인조조 이괄(李适)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진무공신 2등으로 원흥군에 봉해졌다.

또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인물 또한 원주 변씨 시조의 18세손인 변수(邊燧). 구한말 개화파 정치인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후 1891년 6월 미국 마리아드 주립농과 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농무성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이 외에도 문장을 빛낸 인물로는 변태섭 전 서울대 교수, 변시민 전 제주대 총장, 변웅전 전 국회의원, 변현기 전 춘천경찰서장, 텔런트 변우민 등이 있다.

ㄸ 참고 ㄸ

- 원주변씨 인터넷족보
- 원주변씨 가족사랑방 카페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